

화상에 의한 응급처치

이 희택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원장

화상은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 발생하며 주로 어린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가장 흔한 형태의 화상은 열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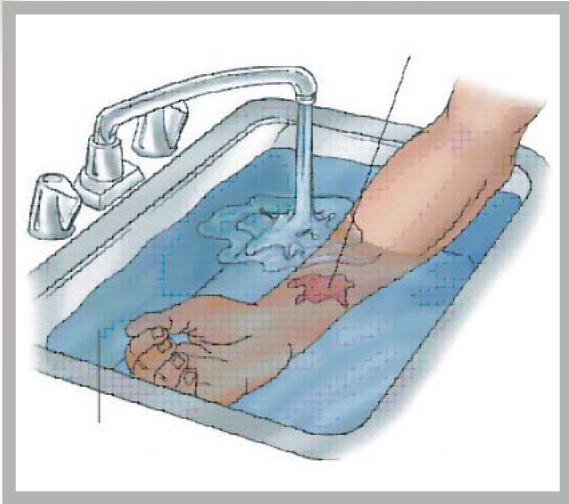
화상 치료의 주목적은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감염의 위험을 제거하며 탈수증을 막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피부가 빨갛게 되고 약간 부어오르며 통증을 느끼는 1도 화상은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고통을 덜어준다. 냉기는 화상이 세포 깊숙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 주므로 물에 담그거나 꺼내어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계속한다(10분~45분).

1도 화상은 드레싱이 필요 없으며 알로에젤이나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가려움과 피부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막아준다.



수포가 형성되고 부어오르며 진물이 나고 심한 통증을 느끼는 2도 화상일 경우엔 몸에 붙어 있는 옷을 잡아당겨서 벗기면 상처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가위로 잘라서 벗



겨야 한다. 또한, 장신구는 시간이 지나면 부어서 빼낼 수 없으므로 최대한 빨리 벗긴다.

1도 화상과 같은 방법으로 열을 식혀야 하며 화상 면적이 체표면의 20%(소아10%)이상인 중증환자는 다량의 열과 수분을 잃게 되어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화기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분 이상 냉각시키지 않는다.



팔다리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부종을 막기 위해 상처 부위를 올려주면 좋다.

열기가 다 식기 전에 연고 같은 것을 바르면 열기를 내보내지 못해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열기가 다 식은 후에 병균의 침입을 막기 위해 화상연고를 바르되 수포는 절대로 터뜨리지 않으며 감염의 위험이 있는 민간약제(기름, 간장, 고약) 등도 바르지 않아야 한다.

또한 드레싱 용도로 비닐과 젖은 드레싱은 사용해서도 안된다.



피하지방까지 손상되어 피부가 건조하고 마른 가죽처럼 갈색 또는 흰색으로 변한 3도 화상은 말초신경과 혈관이 파괴되므로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만약 통증을 호소한다면 1~2도 화상을 동반한 경우이므로 이 부위는 차갑게 하는 것이 좋으며 건조하고 붙지 않는 멸균 드레싱이나 깨끗한 천으로 상처를 감싼 후 쇼크를 막기 위해 다리를 높여주고 깨끗한 천이나 담요로 환자를 따뜻하게 한다.

3도 화상환자는 죽은 세포를 제거하고 피부이식수술을 받는 것이 좋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